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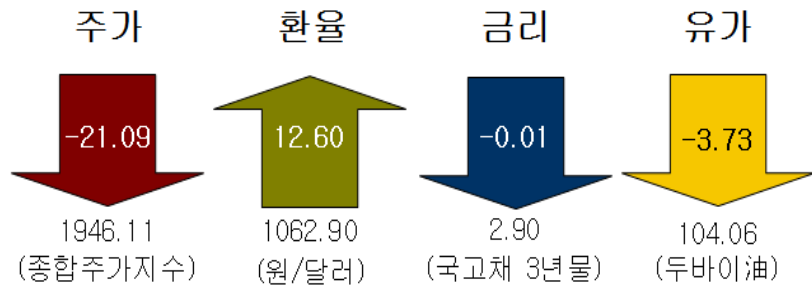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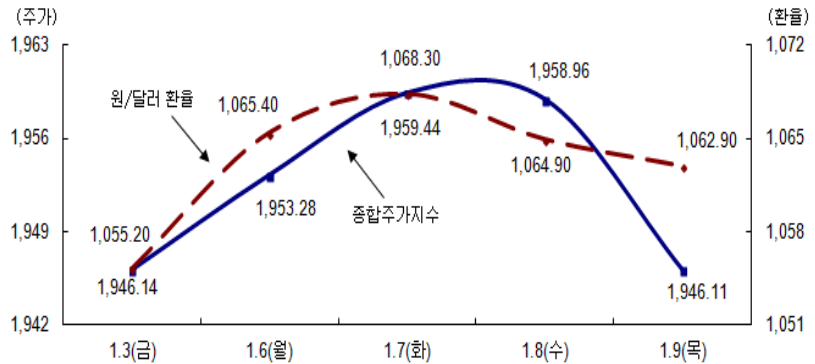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 2014년 한국경제 희망요인

- ① 4만달러 시대를 향한 약진
- ② 무역 G7으로 도약
- ③ 고용률 신기록 퍼레이드
- ④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반등
- ⑤ 융합을 통한 ICT 재도약
- ⑥ 나노 혁명의 가속화
- ⑦ 요우커 500만 시대
- ⑧ 의료서비스 수출의 본격화
- ⑨ 스포츠 강국으로 위상 제고
- ⑩ 지역경제의 재조명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3~1.9)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 2014년 한국경제 희망요인 | 1  |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22 |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김 동 열 기업정책연구실장 외 (2072-6213, dyki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14년 한국경제 희망요인

■ 2014년은 국내외 경기 회복이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의 출구전략, 일본의 엔저 등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자신감을 되찾고 기초체력을 다지며,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으로 삼고자 '희망요인'을 선정하였다.

#### ■ 경제

##### ① 4만달러 시대를 향한 약진

대내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및 투자의 역할 강화, 정책적 여건에 따른 ICT의 도약, 서비스 산업의 고성장 등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07년 2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약 10년만인 2017년 3만 달러에 도달하면서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3만 달러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하락의 근본 원인인 투자 부진,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저생산성 및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 ② 무역 'G7'으로 도약

3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한 한국 무역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빠른 수출 회복으로 향후 무역 'G7'으로 도약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2014년은 미국과 세계 경기 회복세, 제품 경쟁력 증대, 경제영토 확장 지속 등으로 우리 수출입 경기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무역 7강을 향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수출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투자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 수출 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

##### ③ 고용률 신기록 퍼레이드

2012년 고용률(15~64세 기준)이 64.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래, 2013년에는 64.4%, 2014년에는 65.2%로 신기록 퍼레이드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회복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복지수요가 확대되면서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세를 주도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여성과 베이비붐세대의 고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반동

2013년 4.1, 8.28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2014년에는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취득세 인하 등 국회통과 법안 등이 효력을 발휘하여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반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택의 매수우위지수와 전세수급지수 등 심리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바, 앞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지속 반동을 위해서는 부동산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 가계부채 연착륙 등 주택시장관련 펀더멘털의 개선이 시급하다.

#### ■ 산업

##### ⑤ 융합을 통한 ICT 재도약

이미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ICT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선도하며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ICT융합 신제품의 확산, ICT융합 서비스의 다양화, 유·무형 창조역량의 고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 ⑥ 나노 혁명의 본격화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미래의 핵심 기술인 나노 혁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2조원 이상의 정부 투자를 통해 나노 기술력은 최고 수준에

진입하였고, 그 동안 이룩한 성과를 상용화하여 산업적, 경제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나노융합 산업 활성화로 기존 제조업의 기술 정체 상태 상태와 우리 경제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다.

### ⑦ 요우커 500만 시대

2013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어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을 추월했으며 2014년에는 요우커 500만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요우커 급증 현상은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 일본 원전사고 및 반일감정에 따른 상대적 우위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한국의 쇼핑 관광 매력, 비자 발급의 편의성 등 대내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쇼핑 관광 활성화, 오락·레저·의료·MICE 상품 개발 등 관광 상품의 다양화 및 차별화 노력이 요구된다.

### ⑧ 의료서비스 수출의 본격화

2014년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은 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관광이 경제전체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차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의료관광이 세계적으로 하나의 추세로 정착했고, 거대한 중국 중산층의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료서비스 체계의 장점을 살리면서 의료관광을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사회·문화

### ⑨ 스포츠 강국으로 위상 제고

2010년 동계올림픽 및 월드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2014년에도 기세를 이어가면서 2월 소치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과 6월의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선전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가 위상 제고 및 관련 소비 진작을 비롯한 직간접적 경제 효과는 물론, 국민의 자긍심 고취, 사회 통합의 계기 마련과 같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막대한 긍정적 효과들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⑩ 지역경제의 재조명

6.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자치 20년이 시작된다. 오랜 지방자치의 결과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체감경기도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등 지역경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2002년 21만여명에 달했던 非수도권의 인구 순유출은 2012년 6,900명으로 급감했으며,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53%까지 증가했고, 세종시 공무원 1만명 시대가 열렸다. 2012년 귀농가구는 1만 가구를 넘었고,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2006년 1월 대비 50%이상 상승해 있다. 이처럼 지역이 재평가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 2014년 한국경제 희망요인 |                 |                               |
|-----------------|-----------------|-------------------------------|
| 경제              | 산업              | 사회·문화                         |
| ①4만달러 시대를 향한 약진 | ⑤융합을 통한 ICT 재도약 | ⑨스포츠 강국으로 위상 제고<br>⑩지역경제의 재조명 |
| ②무역 'G7'으로 도약   | ⑥나노 혁명의 가속화     |                               |
| ③고용률 신기록 퍼레이드   | ⑦요우커 500만 시대    |                               |
| ④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반등 | ⑧의료서비스 수출의 본격화  |                               |

## 1. 희망요인 선정 배경

- 2014년은 국내외 경기의 회복이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의 출구전략, 일본의 엔저 등 불안감도 존재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자신감을 되찾고 기초체력을 다지며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으로 삼고자 '희망요인'을 선정
  - 2014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대 후반으로 전망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 내수부진, 미국의 출구전략, 일본의 엔저 지속 등 여러 불안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
  - '10대 희망요인'의 실현과 강화를 통해 향후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희망요인은 3개의 분야로 나누어 경제 분야에서 네 개, 산업 분야에서 네 개, 사회-문화 분야에서 두 개 등 모두 10개를 선정
  - 경제 분야에서는 '4만달러 시대를 향한 약진', '무역 G7으로 도약', '고용률 신기록 퍼레이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반등' 등 4가지를 선정
  - 산업 분야에서는 '융합을 통한 ICT 재도약', '나노 혁명의 가속화', '요우커 500만 시대', '의료서비스 수출의 본격화' 등 4가지를 선정
  -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스포츠 강국으로 위상 제고', '지역경제의 재조명' 등 두 가지를 선정

### < 2014년 한국경제 희망요인 >

| 경제              | 산업              | 사회·문화                         |
|-----------------|-----------------|-------------------------------|
| ①4만달러 시대를 향한 약진 | ⑤융합을 통한 ICT 재도약 | ⑨스포츠 강국으로 위상 제고<br>⑩지역경제의 재조명 |
| ②무역 'G7'으로 도약   | ⑥나노 혁명의 가속화     |                               |
| ③고용률 신기록 퍼레이드   | ⑦요우커 500만 시대    |                               |
| ④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반등 | ⑧의료서비스 수출의 본격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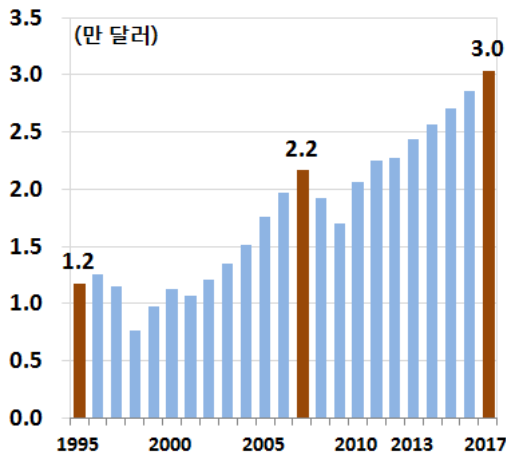
## 2. 2014년 한국경제 희망요인

### ①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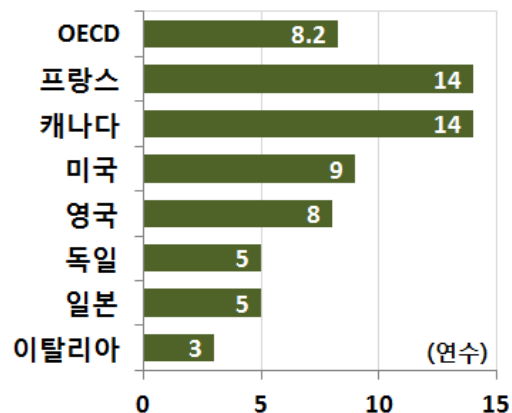
○ (의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17년경 3만 달러에 도달하면서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볼 것으로 전망

- 한국의 1인당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소득)는 1995년 1만 달러를 상회하였고 2007년 이후 2만 달러대를 유지(2008년 및 2009년은 1만 달러대 기록)
- 향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에 2만 5,000 달러 내외를 기록한 이후 2017년 경에 3만 달러에 도달하면서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볼 것으로 전망<sup>1)2)</sup>
  - 한국의 2만~3만 달러 달성 기간은 10년으로 OECD 21개국 평균인 8.2년 보다 약 2년이 더 소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전망>



<OECD 주요국 2만~3만 달러 달성기간>



자료 : 1) 2013년 이후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자료 : UN통계를 이용한 계산.  
2) 2012년 이전은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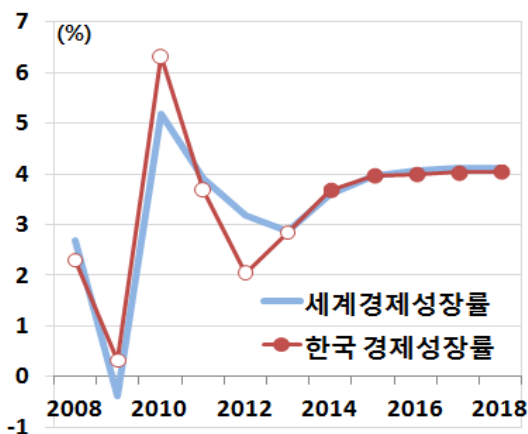
○ (배경) 한국 경제가 2017년 전후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는 원동력은 대내외 경기 회복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성장 견인 역할 강화, 정책적 여건에 따른 ICT의 도약 및 서비스 산업의 고성장 등이 될 것으로 예상

- 2014년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면서 한국도 수출과 투자가 본격적인 확장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1) 현대경제연구원이 2017년까지 IMF의 중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3.9%가 지속되고 2013년 환율수준 및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조건으로, IMF,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2) 한편, 최근 한국은행은 새로운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국민계정체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민소득이 상향조정되어 수치상 3만 달러 달성 기간은 1년 정도 앞당겨진 2016년경이 될 가능성도 존재.

- 세계 경제의 회복: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8~2013년 연평균 2.9%에서 2014~2018년 4%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
  - 한국의 저성장 탈출: 이러한 해외수요 확대는 수출과 투자 증가세로 이어지면서<sup>3)</sup> 한국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성장기에서 탈출할 것으로 전망
- ICT 부문은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 단계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 산업도 집중적인 육성 노력으로 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경제 선도산업인 ICT의 도약: 정부는 경제 선도산업이자 미래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인 ICT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서비스 산업의 성장력 강화: 또한 사회서비스업,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의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세계 및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IMF.

<정부의 IT 산업 육성 전략 목표>

|              | 2012    | 2017(E) |
|--------------|---------|---------|
| ICT 수출액      | 1,552억불 | 2,012억불 |
| 기술 상용화율      | 18.2%   | 35.0%   |
| 특허 활용률       | 30%     | 50%     |
| 국제표준 특허보유 순위 | 세계 6위   | 세계 4위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중장기전략.

- (시사점) 한국 경제가 3만 달러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4만 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하락의 근본 원인인 투자 부진, 생산가능 인구비중 감소, 저생산성 및 비효율성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주원 수석연구위원 (02-2072-6235, juwon@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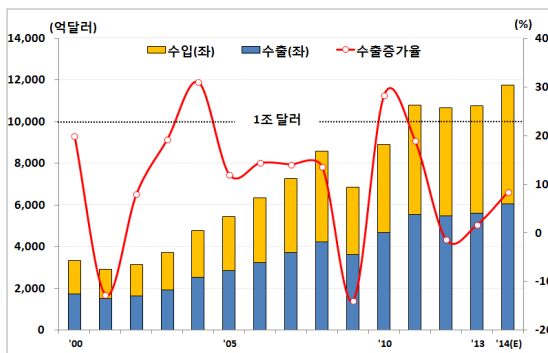
3) OECD는 한국 실질 고정투자증가율이 2008~2013년 연평균 0.7%에서 2014~2015년 5.9%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② '무역 G7'으로 도약

○ (의미) 3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한 한국 무역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빠른 수출 경기 회복에 힘입어 '무역 G7'으로 도약할 전망

- 2013년 우리 무역은 3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함과 동시에 최대 수출 및 최대 흑자의 '트리플크라운' 달성
  - 2013년 세계 무역 8강 및 수출 5,597억달러, 무역수지 442억달러 흑자 달성<sup>4)</sup>
- 향후 세계 경기 회복과 빠른 수출 회복으로 한국은 '무역 G7'으로 도약할 전망
  - 2014년 우리 수출은 8.4%, 수입은 10.5% 증가<sup>5)</sup>하여 무역순위 7위에 근접하고, 2015년경에는 영국을 제치고 '무역 G7'으로 도약할 전망<sup>6)</sup>

<수출입 실적 및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주 : 2014년은 수출입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세계 무역순위 추이>

|    | 2000 | 2010 | 2012 | 2013 |
|----|------|------|------|------|
| 1  | 미국   | 미국   | 미국   | 중국   |
| 2  | 독일   | 중국   | 중국   | 미국   |
| 3  | 일본   | 독일   | 독일   | 독일   |
| 4  | 프랑스  | 일본   | 일본   | 일본   |
| 5  | 영국   | 프랑스  | 네덜란드 | 프랑스  |
| 6  | 캐나다  | 네덜란드 | 프랑스  | 네덜란드 |
| 7  | 이탈리아 | 영국   | 영국   | 영국   |
| 한국 | 13위  | 9위   | 8위   | 8위   |

자료 : WTO, 산업통상자원부.  
 주 : 2013년은 1~10월 기준.

○ (배경) 2014년 미국과 세계 경기 회복세, 제품 경쟁력 증대, 경제영토 확장 지속 등으로 수출입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도약의 전기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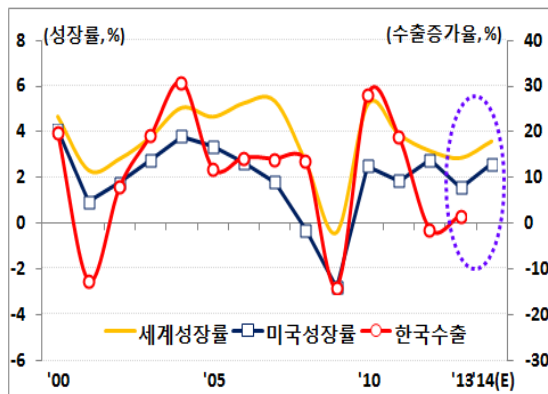
- 미국과 세계 경기 회복 : 미국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 세계 경기의 동반 회복으로 우리 대미국·대세계 수출 경기 개선 기대<sup>7)</sup>
  - 한국의 대미수출 비중은 2010년 10.7%에서 2013년 11.1%로 증가했고, 미국 내수 소비와 산업 경기 회복으로 대미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예상
  - 향후 미국 경기 회복이 글로벌 경기의 동반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4)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수출입 동향 및 2014년 수출입 전망”.  
 5)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국내 경제 전망” 『경제주평』 13-42(no. 559).  
 6) 2000~2012년 사이 영국의 무역규모는 연평균 5.5%, 우리나라는 11.3% 증가하여, 이를 단순 적용하면 2015년경에는 우리 무역규모가 영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  
 7) 회귀분석결과 미국 GDP 성장률이 1%p 상승하면 우리 대미 수출은 2.97%p, 우리 총수출은 1.4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대경제연구원, “미국 출구전략과 파급영향” 『경제주평』 13-40(no.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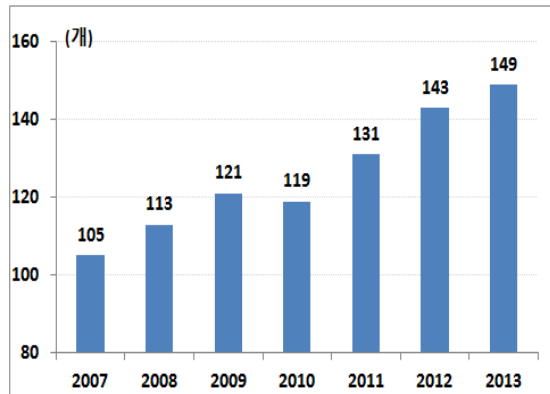
- 우리의 전반적인 수출 경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특히 미국 경기회복으로 중국 및 아세안 등 개도국의 대미 수출이 확대되면, 우리의 대개도국 중간재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품 경쟁력 증대** : 국내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증가하고 있어 세계 경기 회복시 경쟁력 높은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은 총 149개이며,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드는 품목을 포함하면 461개임<sup>8)</sup>
  -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경쟁력 증대 등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 품목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 증가가 기대
- **경제영토 확장 지속** : FTA 체결로 경제 영토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향후 수출 실적의 높은 성장세 예상
  - 우리나라의 경제영토(57.7%)는 칠레(78.5%), 멕시코(64.1%)에 이어 세계 3위이며,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따른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 개선<sup>9)</sup>
  - 최근 호주에 이어 향후 중국, 캐나다와의 FTA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으로 경제영토 확장 지속 및 높은 수출 성장세가 예상됨

<세계 성장률과 우리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 IMF. 무역협회.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제품수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시사점) 수출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투자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 수출 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 등이 필요함

- 특히 일본,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 개발 등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 강화

최성근 선임연구원(02-2072-6223, csk01@hri.co.kr)

8) 산업통상자원부.

9) 산업통상자원부.

### ③ 고용률 신기록 퍼레이드

○ (의미) 2014년에 고용률이 3년 연속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고용률 70%에 한 발 더 다가갈 전망

- 2012년 고용률(15~64세 기준)이 64.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래, 2013년에는 64.4%, 2014년에는 65.2%로 신기록 퍼레이드가 지속될 전망

○ (내용) 노동공급 측면에서 여성과 장년층이, 노동수요 측면에서 서비스업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며,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증가할 전망

- 노동공급 측면 : 고령화가 심화되고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여성과 50대 베이비붐세대가 고용률 상승을 견인

· 여성 고용률이 2012년 53.5%에서 2013년 53.9%로 0.4%p 상승. 2014년에도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상승폭이 커질 전망

· 베이비붐세대인 50대의 고용률도 같은 기간 72.2%에서 73.1%로 0.9%p 상승. 정년연장 법제화 및 노후준비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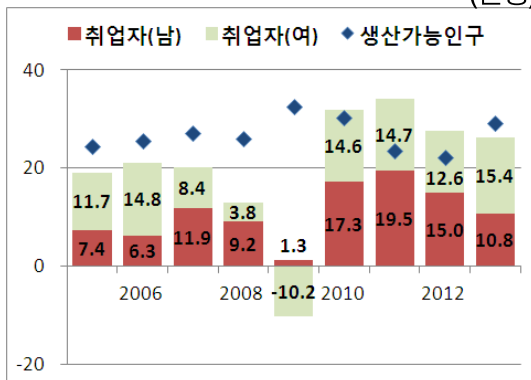
- 노동수요 측면 : 경기회복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세를 주도

· 경제성장률이 2013년 2%후반에서 2014년 3.8%로 상승하면서 고용여건 개선

· 2014년 1월 서비스업의 인력사정 전망 BSI는 87p로 제조업(98p)보다 인력사정이 열악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 추세가 지속될 전망

<성별 취업자 및 생산가능인구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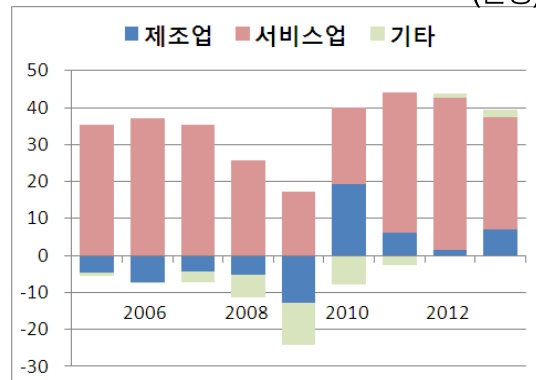
(만명)



자료 : 통계청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  
주 : 2013년 취업자 증감은 1~11월 기준.

<산업별 취업자 증감>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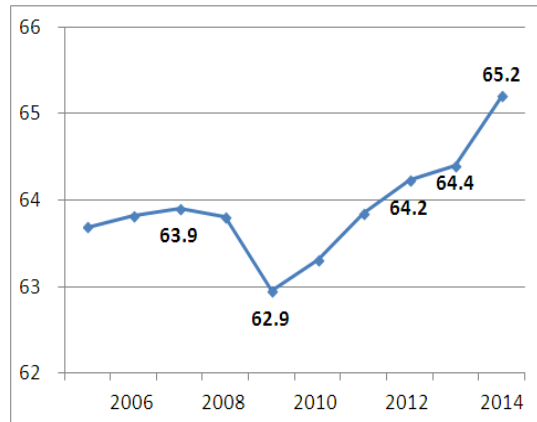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4년부터 데이터 제공).  
주 : 2013년 취업자 증감은 1~11월 기준.

- 정부·제도 측면 : 2014년에도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창조경제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할 계획
  - 정부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그중 93만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충당
  - 창업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장시간 근로 개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연근무 확산, 고용-복지 연계, 여성·장년·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지속
- 고용률 상승 : 15~64세 기준 신규 일자리가 약 30만개 창출되면서 고용률이 65.2%를 기록,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14년까지 정부의 일자리대책 >

|     |   |
|-----|---|
| 법제도 | 시간제근로자 보호법 제정<br>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확대<br>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br>스마트워크 촉진법 제정 등<br>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
| 정책  | 창업 붐 조성 및 벤처투자 활성화<br>사회서비스업 활성화<br>근로시간단축 신규채용 시 지원<br>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확충<br>스펙초월 시스템 구축 등 |

<고용률 추이 및 전망(15~64세)> (%)



자료 : 정부(고용률 70% 로드맵).

자료 : 통계청, 정부(로드맵).

주 : 2013~2014년 고용률은 현대연 전망치.

- (시사점) 고용률 70%를 향해 신기록 퍼레이드를 계속하려면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과 고용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
  - 노동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규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도 향상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경제계와 노동계, 정치권의 적극적 참여·협력과 함께 정부의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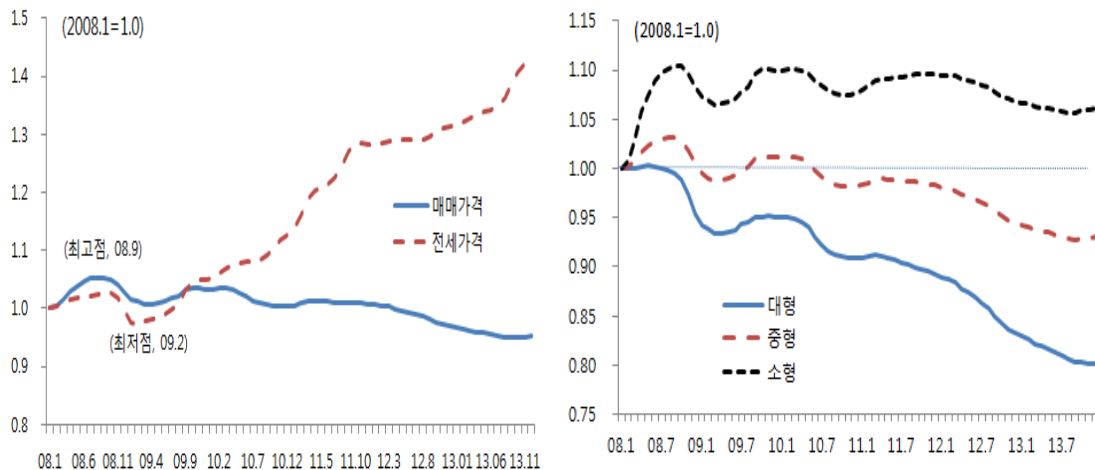
이준협 연구위원(02-2072-6219, sododuk1@hri.co.kr)

#### ④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등

○ (의미) 2013년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2014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새 정부의 몇 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의 효과는 수도권에 제한적임
  - 2013년 4.1, 8.28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였으나 매매 거래만 일시적으로 상승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소형 중심으로 국지적이며, 일시적으로 나타났을 뿐 주택 매매시장 침체, 전세가격 급등 등의 현상 지속
- 최근 경기회복세 분위기와 어울려 12.3 부동산대책과 국회계류중인 법안의 통과 등으로 2014년에는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

< 수도권 아파트매매/전세가격지수 > < 수도권 규모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



자료 : KB은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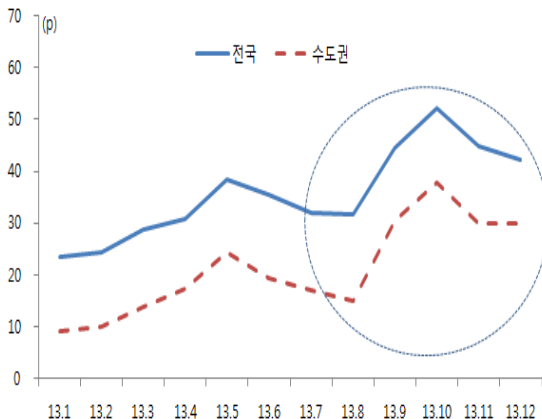
주 :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형은 62.8㎡미만, 중형은 62.8㎡ - 96.8㎡, 대형은 95.9㎡ 이상임.

○ (내용) 2014년에는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부동산대책의 효력이 발휘되어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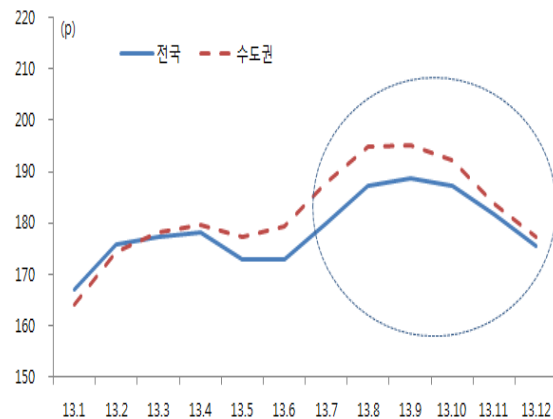
- (경기회복) 2014년 경기회복세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국내 경기가 2013년 하반기 상승 반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4년 경제성장률은 3.8% 내외로 상승할 것이 예상됨

- (부동산대책) 수요 진작대책이 경기회복세와 맞물리면서 강력한 효과 가능
  - (공유형모기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제 혜택)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등 지난 4.1 및 8.28 대책에서 제시된 법안이 2013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일부 통과
- (중소형가구 급증)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소형 가구 큰 폭 증가 지속
  - 핵가족화, 고령화, 이혼율 급증 등으로 가구의 다운사이징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수도권 소형(1~3인) 가구는 연간 약 18만 정도 증가 추계(통계청)
- (상승 기대감) 경기회복 기대, 부동산대책, 중소형가구 급증 등으로 2013년 말부터 수도권 주택시장의 심리가 반등하고 있음
  - 악화되던 주택 매수우위지수도 8.28 대책 이후 빠르게 하락 반전
  - 악화되던 주택 전세수급지수도 8.28 대책 이후 빠르게 하락 반전

< 2013년 주택 매수우위지수 >



< 2013년 전세수급지수 >



자료 : KB은행.

- 주 : 1)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우위' 비중이 높음.
- 2)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비중이 높음.

○ (시사점)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동산정책뿐만 아니라 주택시장관련 펀드멘털의 개선도 시급

-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의 일자리창출과 생산성제고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
- 높아진 가계부채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 청년층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그들의 특성에 맞는 사회진입 정책 지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02-2072-6216, dbpark@hri.co.kr)

⑤ 융합을 통한 ICT 재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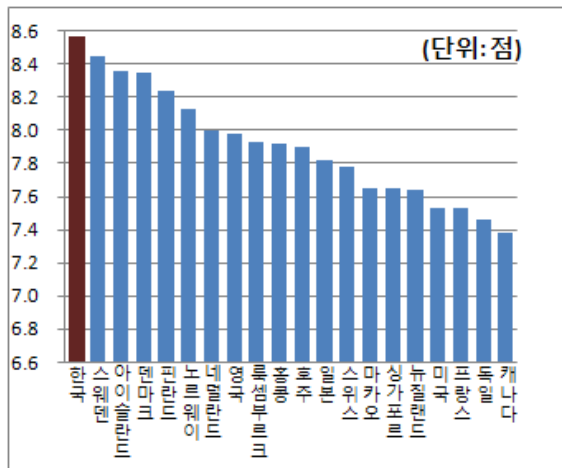
○ (의미) 이미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ICT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선도하며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할 전망

- ICT융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타 산업에 접목하여 기존의 제품, 서비스 및 공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
  - ICT융합 트렌드는 스마트홈/빌딩/시티/교통,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유헬스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
- 우리나라는 2013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한 ICT 발전지수에서 조사대상 157개국 중 1위를 차지 (4년 연속 1위)
  - ICT 발전지수는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 역량 등 세 부문에 대한 개별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 순위를 결정

○ (내용) ICT융합 신제품의 확산, ICT융합 서비스의 다양화, 유·무형 창조 역량의 고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

- (ICT융합 신제품 확산) 웨어러블 디바이스(시계, 안경, 의복),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등 다양한 ICT융합 제품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
  - ICT융합의 중심인 스마트폰의 한국 점유율은 36%로 최고 수준에 도달
  - ICT 수출액은 2013년 10월 160억달러를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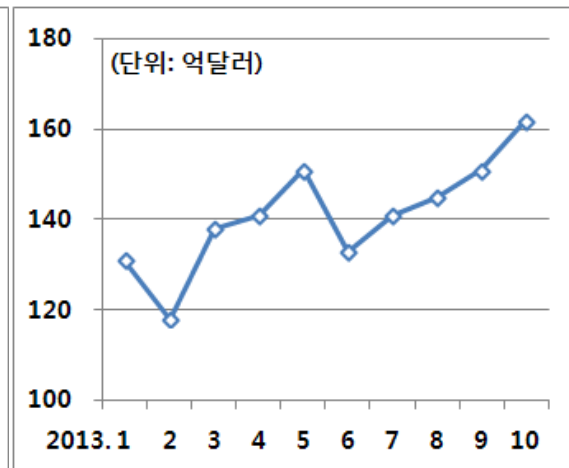
< ICT 발전지수 국제비교 (2013년) >



자료 : ITU.

주 : 157개국 중 상위 20개국의 점수.

< ICT 수출액 추이 (2013년)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ICT융합 서비스의 다양화)** 교육, 의료, 문화 등 전통적인 서비스업 역시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
  - 교육 부문은 학생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영상 및 시뮬레이션 학습자료가 광범위하게 활용될 전망
  - 스마트 의료기기와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
  - 방송, 통신, 미디어가 인터넷 기반으로 융합되면서 OTT<sup>10</sup>), 인터넷 영상통화, 전자책 서비스 등이 빠르게 성장
  - 게임, 영화, 음악 등 문화·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 형태의 변화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발생
  
- **(유·무형 창조역량 고도화)** 창조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ICT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무형자산 증가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CT 장비 개발 및 네트워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핵심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
  
- **(시사점)**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CT융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사업 초기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내수 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
  -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하여 법·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장우석 연구위원 (02-2072-6237, jangws@hri.co.kr)

10) OTT(Over-the-top)는 원래 셋톱박스를 통한 방송이라는 의미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의미.

### ⑥ 나노 혁명의 가속화

○ (의미)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미래의 핵심 기술인 나노 혁명이 가속화 될 전망

- 나노 기술은 100nm(만분의 일 밀리미터) 이하의 크기에서 인위적으로 물질을 제조·조작·제어함으로써, 기존 물질보다 월등히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발현하는 기술

- 나노 혁명은 기존 제조업 혁신, 신사업·신시장 창출의 핵심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물 부족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의 강력한 해결 수단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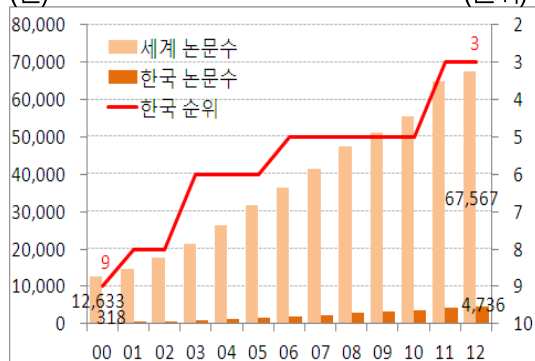
○ (배경) 지난 10년간 2조원 이상의 정부 투자를 통해 나노 기술력은 최고 수준에 진입, 그 동안 이룩한 성과를 상용화하여 산업적, 경제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

- (나노 기술력) 국가차원의 나노기술 지원과 연구개발 활성화에 힘입어 한국의 나노 기술력은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

· 2000년 한국의 나노기술관련 SCI 논문 국가 순위는 9위에 불과했으나 2011년부터 중국, 미국에 이어 3위권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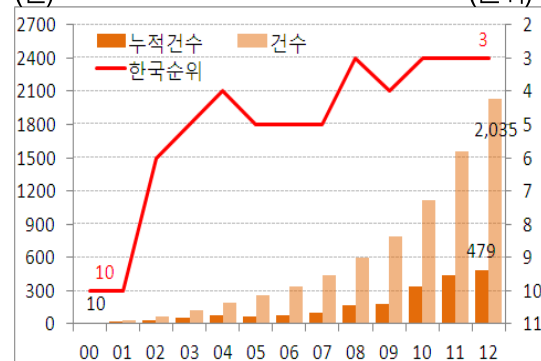
· 한국의 나노 기술 분야 미국 공개특허 등록 건수 국가 순위는 2000년 10위에 불과했으나 2010년부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

< 한국의 나노기술관련 SCI 논문 추이 > (건) (순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나노기술 연감 2012.

< 한국의 나노기술 미국 등록 특허 추이 > (건)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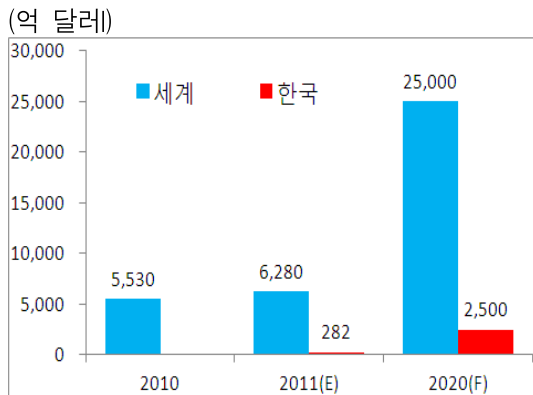


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년도 나노기술발 전시행 계획(안).



- (국내 나노융합 산업의 규모 현황<sup>11)</sup>) 2011년 국내 나노융합산업 생산규모는 총 92.3조 원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액 1,502.4조 원의 약 6.1%를 차지
  - 2011년 나노융합산업 고용 인력은 13.1만 명으로 제조업 전체 고용자 수 269.4만 명의 약 4.9%를 차지
- (상용화 본격화) 정부는 글로벌 나노융합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나노융합 확산전략 2020’을 수립, 2020년까지 총 9,3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세계 나노융합 산업 시장은 매출규모 기준 2011년 6,280억 달러에서 2020년 2조 5,000억 달러로 연평균 18.0%씩 성장할 전망
  - 국내 나노융합 산업의 규모는 2011년 282억 달러에서 2020년 2,500억 달러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동기간에 4.5%에서 10.0%까지 증가를 목표로 함
  - 또한 2010년 기준 한국의 나노 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를 기록, 2020년까지 세계 3위권 진입을 목표로 함

< 세계 나노융합 산업 규모 전망 >



< 한국의 나노융합 산업의 미래상 >

| 구 분            | 2011년      | 2020년     |
|----------------|------------|-----------|
| 나노 융합 기업 수     | 690개       | 2,000개 이상 |
| 기술 경쟁력         | 4위 (2010년) | 3위 이내     |
| 세계 최고 기술 수준 대비 | 81%        | 90% 이상    |
| 나노융합 산업 일자리    | 5.2 만 명    | 10.8만 명   |
| 나노 융합 전문 인력    | 0.7만 명     | 2만 명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 확산전략” 2012년 12월 4일.

- (시사점) 나노 융합 산업 활성화로 기존 제조업의 기술적 정체 상태와 우리 경제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 될 것임
- 향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 집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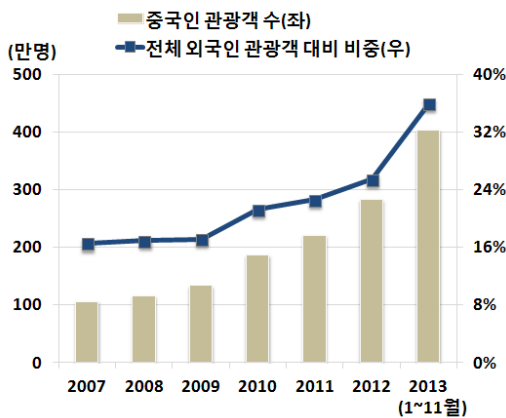
정 민 선임연구원 (02-2072-6220, chungm@hri.co.kr)

11) 산업통상자원부, 2012 나노융합산업조사.

⑦ 요우커<sup>12)</sup> 500만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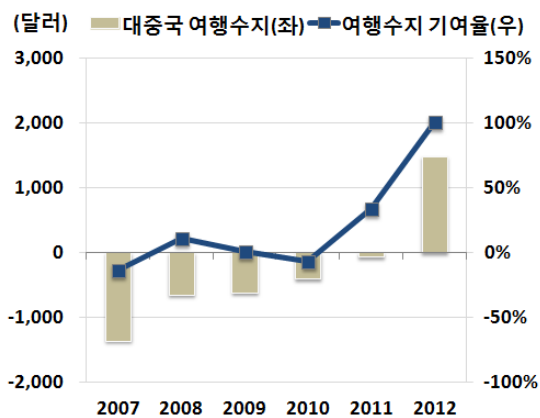
- (의미) 2013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어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을 추월했으며 현재 추세라면 2014년에는 500만 명을 크게 상회할 전망
- 2013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400만 명을 초과해 일본을 넘어 최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부상
  - 2013년 11월 누적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동기대비 53.4% 증가한 405만 635명으로 이미 2012년 1년 간 기록했던 284만 명을 42.8% 초과
  - 2013년 11월까지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인 관광객을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제 1순위 방한 외국인 국가로 부상
-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4년에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50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의 여행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약 29%(CAGR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4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500만 명을 돌파할 전망
  - 요우커 증가로 한국의 대중국 여행수지가 2012년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한국의 여행수지에 기여하는 비율(기여율) 또한 최근 2년간 급증 추세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및 비중>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의 대중국 여행수지 및 기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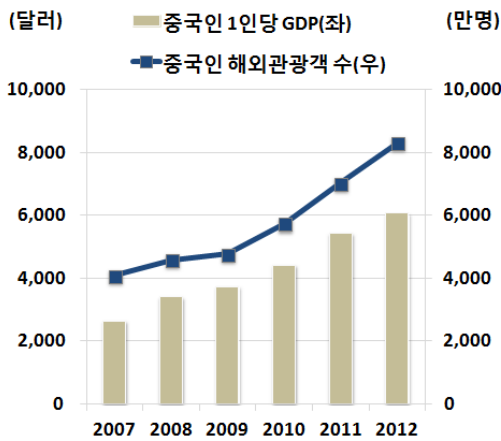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주 : 기여율 = (대중국 여행수지 증감액 / 전체 여행수지 증감액) \* 100.

- (배경)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 원전 사고·반일 감정 악화 등 대외적 요인과 한국의 쇼핑 관광 매력, 비자 발급의 편의성 등 대내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

12) 요우커(遊客)란 관광객을 통칭하는 중국어로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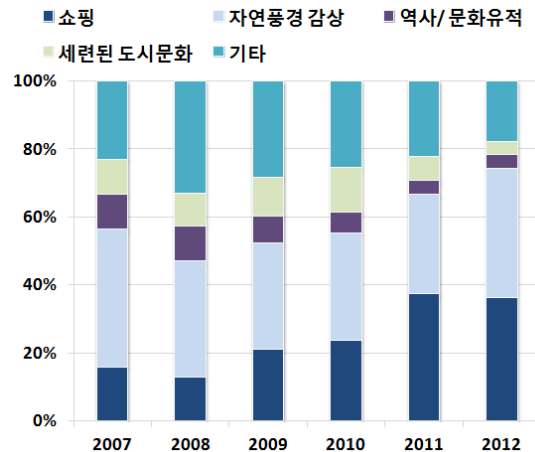
- (대외적 요인) 중국인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원전 사고, 반일감정 등으로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중국인 증가
  - 중국인들의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해외 관광하는 중국인 수도 2012년 8,000만 명을 돌파하며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2년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따른 반일감정 등으로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지 순위가 일본은 2010년 3위에서 2011년 이후 5위로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4위에서 3위로 상승<sup>13)14)</sup>
- (대내적 요인) 중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위한 관광지로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최근 비자 발급 편의성이 증가하면서 제주를 통한 방한이 동시에 급증
  - 과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1순위 여행 동기였던 '자연 풍경 감상' 및 '역사/문화유적'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 반면, '쇼핑'은 2007년 15.7%에서 2012년 36.1%로 급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한국 여행 동기가 쇼핑으로 전환
  - 2008년 30일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제주를 통해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2008년 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4.8%에서 2013년 11월 현재 24.9%까지 급증

<중국인 1인당 GDP 및 해외관광객 수>



자료 : IMF, CEIC.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동기>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주 : 여행 동기 1순위 기준.

- (시사점) 테마 쇼핑형 관광지 개발을 통한 쇼핑 관광 활성화, 오락·레저·의료·MICE 상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 급증하는 중국인 해외관광객 유치에 관광 상품의 다양화 및 차별화 노력이 요구

백다미 선임연구원 (02-2072-6239, dm100@hri.co.kr)

13) 중국인들은 한국 방한 전 한국과 비교 국가로 일본을 주로 고려(57.5%,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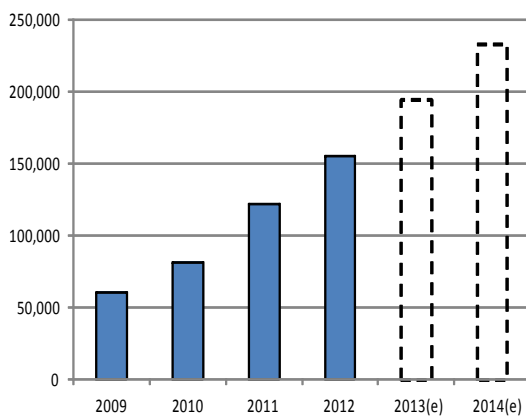
14)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지 순위 1위는 홍콩, 2위는 마카오로 조사(2012년 기준).

⑧ 의료서비스 수출의 본격화

○ (의미) 의료관광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의료서비스수출이 본궤도에 진입하고 그에 따라 경제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 확대 시작

- 2014년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은 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3년 4월 추정에 따르면 2012년 의료관광객 2011년 122,297명보다 27.3% 증가한 155,672명, 진료수입은 1,810억 원보다 32.1% 증가한 2,391억 원
  - 2013년과 2014년 의료관광객 증가율을 각각 25%와 20%로 가정하면 각각 194,590명과 233,508명으로 2011년 태국방문 추정 의료관광객 220만 명의 약 10%수준 기대
- 의료관광산업의 성장은 이미 국제수지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향후 전체 경제성장률과 고용에도 큰 긍정적인 역할 예상
  - 2011년 건강관련 여행수지는 5,220만 달러 그리고 2012년 3,460만 달러 흑자
  - 2012년에서 연간 5%씩 성장 시 2020년 생산유발효과 6.1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원 그리고 고용은 6.1만 명으로 증가 전망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 추이>  
(단위: 명)



자료 : 「2013 한국의료관광 총람」,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13.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역할>

|                   | 2012   | 2015   | 2020   |
|-------------------|--------|--------|--------|
| 생산유발효과<br>(억 원)   | 12,610 | 29,021 | 61,731 |
| 부가가치유발효과<br>(억 원) | 6,220  | 14,315 | 30,449 |
| 취업유발효과<br>(명)     | 12,466 | 28,690 | 61,027 |

자료 : ibid.  
주 : 2012년부터 매년 5%성장 가정.

○ (배경) 의료관광이 하나의 추세로 확고히 정착하고 있고,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의료서비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조성 시작

-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추세로 정착한 의료관광은 향후 빠른 성장이 전망되며 특히 중국의 중산층 거대화가 지역적으로 유리한 요소
  - 의료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2008년 600억 달러, 2009년 730억 달러 그리고 2012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
  - 중국경제의 8%가 넘는 고도성장은 거대한 중산층을 만들어내면서 한국에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려는 시도 증가예상
-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 2009년 기준으로 1회 CT스캔의 경우 한국은 70달러지만 미국은 1,000달러에 달해 의료서비스 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렴함
  - 암의 발병 후 5년 생존율에서 미국에 육박하고 간이식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정도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최선진국 수준

<한국의료서비스의 가격경쟁력>

| 국가   | 가격(만 원) | 항목 수 |
|------|---------|------|
| 한국   | 153     | 38   |
| 태국   | 262     | 28   |
| 싱가포르 | 188     | 16   |
| 일본   | 222     | 35   |

<한국의료서비스의 기술경쟁력>

| 국가           | 암의 5년 후 생존율(%) |
|--------------|----------------|
| 한국('04~'10)  | 64.1           |
| 미국('99~'06)  | 65.4           |
| 캐나다('04~'06) | 62.0           |
| 일본('97~'99)  | 54.3           |

자료 : 2013 한국의료관광 총람」,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13.

- 정부의 의료관광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규정비 시작
  - 2013년 11월 26일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일정 의료관광객을 유치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의료서비스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 (시사점) 한국 의료체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의료관광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함
  - 국민들에게 폭넓게 보장되어온 의료에 대한 접근, 곧 공익성을 강화하면서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는 자율적인 통제장치 도입
  - 의료관광효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의료서비스의 홍보를 강화

예상한 연구위원 (02-2072-6232, syeahk@hri.co.kr)

⑨ 스포츠 강국으로 위상 제고

○ (의미) 2014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과 6월 브라질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의 선전이 기대

- 한국에서 스포츠의 선전은 국민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
  - 일제강점기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획득, 1998년 IMF 구제금융 이후 박찬호, 박세리 선수의 선전 등 한국인에게 스포츠는 치유, 통합, 활력 등을 제공

○ (배경) 동계올림픽,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 사회 통합의 분위기 형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

- (소치 동계올림픽) 2014년 2월 개최되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의 선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효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지속 가능
  - 한국은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1992년 첫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
  -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하여 종합 7위 이내 진입이 목표
  - 특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각종 효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역대 동계올림픽 한국 성적 >

| 연도   | 개최지     | 성적            |
|------|---------|---------------|
| 1948 | 생모리츠    | 첫 참가          |
| 1992 | 알베르빌    | 10위(금2 은1 동1) |
| 1994 | 릴리함메르   | 6위(금4 은1 동1)  |
| 1998 | 나가노     | 9위(금3 은1 동2)  |
| 2002 | 솔트레이크시티 | 14위(금2 은2 동0) |
| 2006 | 토리노     | 7위(금6 은3 동2)  |
| 2010 | 밴쿠버     | 5위(금6 은6 동2)  |
| 2014 | 소치      | -             |

< 역대 월드컵 한국 성적 >

| 연도   | 개최지      | 성적       |
|------|----------|----------|
| 1954 | 스위스      | 첫 참가     |
| 1986 | 멕시코      | 조별 예선 탈락 |
| 1990 | 이탈리아     | 조별 예선 탈락 |
| 1994 | 미국       | 조별 예선 탈락 |
| 1998 | 프랑스      | 조별 예선 탈락 |
| 2002 | 한국·일본    | 4강 진출    |
| 2006 | 독일       | 조별 예선 탈락 |
| 2010 | 남아프리카공화국 | 16강 진출   |
| 2014 | 브라질      | -        |

자료: 대한체육회, FIFA.

- (브라질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선전을 거듭한 축구 대표팀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 한국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1986년에 두 번째로 본선에 진출한 후 1998년 프랑스 월드컵까지 조별 예선에서 탈락
  -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2006년 원정 월드컵 본선 첫 승, 2010년 원정 월드컵 최초 16강 진출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
  - 특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2002 한·일 월드컵을 전후로 시작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육성된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 첫 대회로 우수한 성적이 기대
  
- (기대 효과)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에서의 선전은 국가 위상 제고, 소비 진작, 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 등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전망
  -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 한국의 선전은 응원 및 스포츠 관련 소비 증대는 물론, 국가 및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직간접적 경제 효과로 연결
  - 더불어 국민의 자긍심 고취, 응원을 통한 사회 통합의 계기 마련 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효과

< 스포츠 경기의 직간접적 효과 >

| 구분     | 구분              | 효과의 정도 |
|--------|-----------------|--------|
| 직접적 효과 | 소비, 투자 증가       | 매우 높음  |
|        | 국가 통합과 지역 균형    | 높음     |
| 간접적 효과 | 관광, 이벤트 등 산업 발전 | 보통     |
|        | 한국의 이미지 제고      | 매우 높음  |
|        | 스포츠 관련 산업 기술 발전 | 높음     |

< 2010년 남아공 월드컵 >  
16강 진출 효과

| 구분      | 효과  |
|---------|---|
| 경제적 효과  | 직접 효과<br>- 소비 증가에 의한 생산유발효과 <b>1.30조 원</b>                              |
|         | 간접 효과<br>-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 <b>1.35조 원</b><br>-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b>1.68조 원</b> |
|         | 계 경제적 효과 <b>4.33조 원</b>   |
| 경제외적 효과 | 국민의 자긍심 제고, 국민 통합의 계기 마련 등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0-16 「월드컵 16강 진출의 경제적 효과」, 박태일, 정유훈, 2010년 6월 23일.

- (시사점)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이 단기적인 성취감에 그치지 않고 국가 통합과 경제적 성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스포츠, 관광, 이벤트, 국가 및 기업 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육성이 필요

김필수 선임연구원 (02-2072-6238, pskim@hri.co.kr)

⑩ 지역경제의 재조명

○ (의미) 지방자치 20여년의 결과 非수도권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체감경기도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지역경제가 재조명받고 있음

-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역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sup>15)</sup>되고, 체감경기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등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있음

○ (배경) 인구의 순유출 감소, 세종시의 정착, 지역총생산(GRDP)의 호조, 귀농귀촌의 증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호조 등 지방이 재조명되고 있음

- 非수도권 인구유출 급감 : 2002년 21만여 명에 달하던 비수도권의 인구 순유출이 2012년에는 7천여 명으로 급감하는 등 지방의 인구 순유출이 급감함

· 非수도권 인구 순유출 : 2002년 209,591명 ⇒ 2012년 6,900명

- 세종시 공무원 1만 명 시대 : 2013년 12월말 기준 세종시 입주 정부기관은 31개로 늘었고, 공무원도 1만710명으로 처음 1만 명을 넘어서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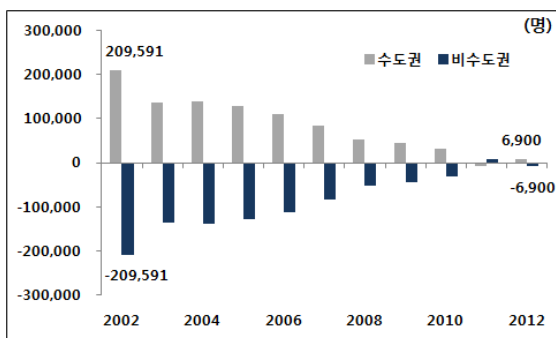
· 2014년 말에는 37개 기관 소속 12,978명의 공무원이 근무<sup>16)</sup>하게 됨

- 非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증가 : 2003년 이후 非수도권의 GRDP 증가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GRDP 비중은 2012년 53%까지 올라감

· 2002년 이후 GRDP 연평균 증가율(CAGR) : 수도권 5.3%, 비수도권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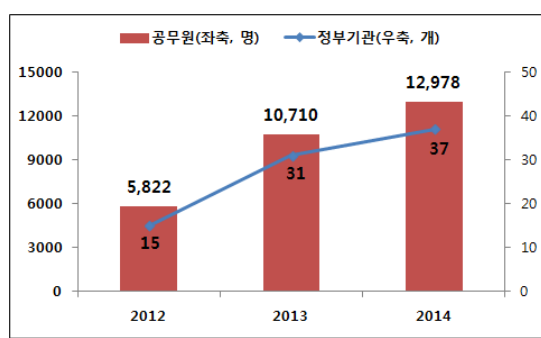
· 非수도권의 GRDP 비중 : 2002년 50.6% ⇒ 2012년 52.9%

< 非수도권 순유출 인구 급감 >



자료 : 통계청 자료 활용 재작성.  
 주 : 1.전입에서 전출을 제외한 '순이동' 기준.  
 2.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세종시 입주 기관 및 공무원 추이 >



자료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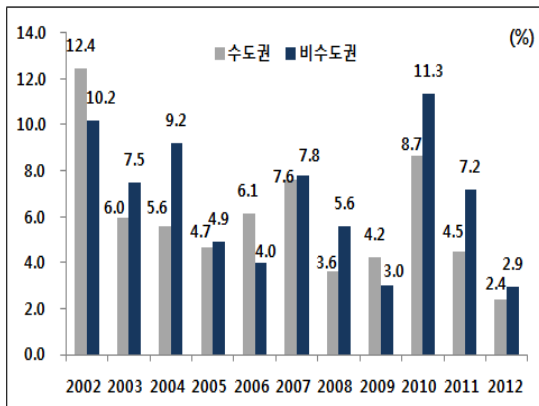
15) 전반적 생활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수도권(27.7%)보다 비수도권(34.1%)이 더 높음(2013년 사회조사).

16)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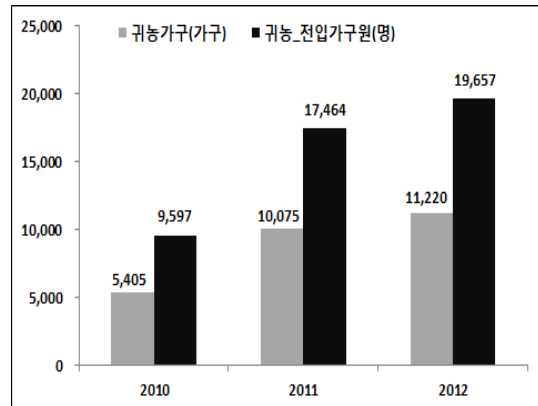
- **귀농귀촌 인력 증가** : 농촌으로 귀농하는 가구는 물론 은퇴 이후에 농촌으로 귀촌하는 인력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귀농가구는 2010년 5,405가구에서 2012년 11,220가구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전입가구원 수도 9,597명에서 19,657명으로 2배 이상 증가
- **지방 부동산 시장 호조** :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계속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 대전시, 세종시 등 지방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일 전망
  -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보면, 수도권은 2006년1월을 100으로 했을 때 2013년10월 현재 131.5까지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은 152.8까지 상승함<sup>17)</sup>
  -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큰 폭으로 감소함

<非수도권의 높은 GDP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자료 활용 재작성.  
 주 : 1.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의 합  
 2.명목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 귀농가구 및 가구원 증가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귀농가구 및 그에 따른 전입가구원 수.

- (시사점) 지방의 제조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며,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끌어 올리고,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의 근본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이를 위한 지방세 세원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
  - 2014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지만, 그렇게 해도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2013년 51.1%에서 52.0%로 0.9%포인트 향상하는데 그침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02-2072-6213, [dykim@hri.co.kr](mailto:dykim@hri.co.kr))

17)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주택시장 전망과 시사점', 경제주평 13-48호(V.565), 2013.11.15. 참조.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 구분    | 2012년 |      |      |      |      | 2013년 |      |     |     | 2014년*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
| 미국    | 2.8   | 3.7  | 1.2  | 2.8  | 0.1  | 1.6   | 1.1  | 2.5 | 4.1 | 2.6    |
| 유로 지역 | -0.6  | -0.1 | -0.3 | -0.1 | -0.5 | -0.4  | -0.2 | 0.3 | 0.1 | 1.0    |
| 일본    | 2.0   | 3.5  | -2.0 | -3.2 | 0.6  | 2.0   | 4.5  | 3.6 | 1.1 | 1.2    |
| 중국    | 7.7   | 8.1  | 7.6  | 7.4  | 7.9  | 7.6   | 7.7  | 7.5 | 7.8 | 7.3    |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3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 구분 | 구분               | 2012년말  | 2013년   |         | 2014년   |         |           |
|----|------------------|---------|---------|---------|---------|---------|-----------|
|    |                  |         | 6월말     | 12월말    | 1월 2일   | 1월 9일   | 전주비       |
| 해외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1.70    | 2.46    | 3.03    | 2.99    | 2.96    | -0.03%p   |
|    | 엔/달러             | 85.86   | 98.51   | 105.04  | 105.37  | 104.85  | -0.52¥    |
|    | 달러/유로            | 1.3222  | 1.3031  | 1.3799  | 1.3768  | 1.3578  | -0.0190\$ |
|    | 다우존스지수(p)        | 12,938  | 14,910  | 16,577  | 16,441  | 16,445  | 4p        |
|    | 닛케이지수(p)         | 10,395  | 13,677  | 16,291  | 16,291  | 15,880  | -411p     |
| 국내 | 국고채 3년물 금리(%)    | 2.82    | 2.88    | 2.86    | 2.91    | 2.90    | -0.01%p   |
|    | 원/달러(원)          | 1,070.6 | 1,142.0 | 1,055.4 | 1,050.3 | 1,062.9 | 12.6원     |
|    | 코스피지수(p)         | 1,997.1 | 1,863.3 | 2,011.3 | 1,967.2 | 1,946.1 | -21.1p    |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 구분      | 구분    | 2012년말 | 2013년  |        | 2014년  |        |         |
|---------|-------|--------|--------|--------|--------|--------|---------|
|         |       |        | 6월말    | 12월말   | 1월 2일  | 1월 9일  | 전주비     |
| 국제 유가   | WTI   | 90.89  | 96.52  | 98.55  | 95.49  | 91.95  | -3.54\$ |
|         | Dubai | 107.99 | 100.38 | 107.88 | 107.79 | 104.06 | -3.73\$ |
| CRB선물지수 |       | 294.78 | 275.62 | 280.17 | 278.00 | 272.88 | -5.12\$ |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구 분             | 2011        | 2012  |       |       | 2013  |        |       | 2014(E)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       |
| 국민계정            | 경제성장률 (%)   | 3.7   | 2.6   | 1.5   | 2.0   | 1.9    | 3.3   | 2.6     | 3.8   |
|                 | 민간소비 (%)    | 2.4   | 1.2   | 2.2   | 1.7   | 1.6    | 2.3   | 2.0     | 2.7   |
|                 | 건설투자 (%)    | -4.7  | -1.9  | -2.4  | -2.2  | 5.2    | 2.5   | 3.7     | 2.5   |
|                 | 설비투자 (%)    | 3.6   | 2.3   | -6.1  | -1.9  | -8.2   | 5.8   | -1.5    | 6.7   |
| 대외거래            | 경상수지 (억 달러) | 261   | 163   | 317   | 481   | 298    | 397   | 695     | 490   |
|                 | 무역수지 (억 달러) | 308   | 109   | 174   | 283   | 200    | 241   | 442     | 399   |
|                 | 수출 (억 달러)   | 5,552 | 2,750 | 2,729 | 5,479 | 2,765  | 2,832 | 5,597   | 6,123 |
|                 | (증가율, %)    | 19.0  | 0.5   | -3.1  | -1.3  | 0.6    | 3.8   | 2.2     | 8.4   |
|                 | 수입 (억 달러)   | 5,244 | 2,641 | 2,555 | 5,196 | 2,565  | 2,591 | 5,155   | 5,724 |
|                 | (증가율, %)    | 23.3  | 2.3   | -4.0  | -0.9  | -2.9   | 2.3   | -0.3    | 10.5  |
| 소비자물가 (평균, %)   | 4.0         | 2.7   | 1.7   | 2.2   | 1.4   | 1.2    | 1.3   | 2.4     |       |
| 실업률 (평균, %)     | 3.4         | 3.5   | 2.9   | 3.2   | 3.4   | 3.2    | 3.3   | 3.1     |       |
| 원/달러 환율 (평균, 원) | 1,108       | 1,142 | 1,112 | 1,127 | 1,104 | 1,086  | 1,095 | 1,070   |       |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